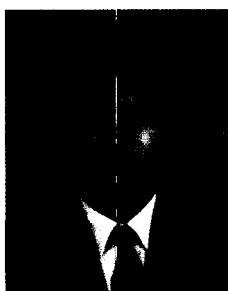


주목

- ▶ 과명 : 주목과
- ▶ 학명 : *Taxus cuspidata*
- ▶ 영명 : Japanese Yew
- ▶ 한명 : 朱木, 赤栢松, 慶木
- ▶ 일명 : いちい



최명섭
임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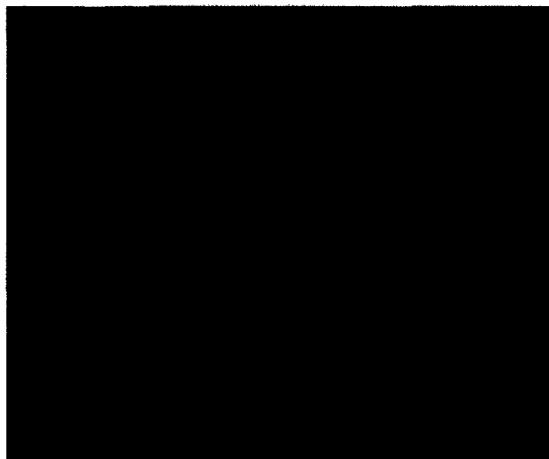
주목은 지구 북반구의 한지산이며 고산성 수목으로 품위 있는 정원수로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상록침엽 큰키나무이다. 꽃은 자웅1가화로서 잎의 겨드랑이에 달리며 열매는 가을에 동그랗고 빨간 열매가 열리므로 더 아름답다. 일본과 중국, 사할린, 캄차카 등 북반구에서 자라며 유럽의 정원에 여러가지 토피아리를 만들어 전시하는 수종은 구주주목(*Taxus baccata*)로서 우리나라 주목과 유사하다.

1. 생태적 특성

높은 산의 정상부근에서 자라고 대부분 300년 이상 나이가 들은 나무로서 분비나무, 전나무, 잣나무, 가문비나무 및 눈측백과 같은 한대산 침엽수 종이나 피나무류, 음나무,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신갈나무 등과 섞여 자라고 햇빛을 적당히 받는 곳에서는 어미나무 근처에서 어린나무가 자라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열매는 새가 먹고 종자를 여기저기 떨어뜨리기 때문에 의외의 곳에서 나타나는 수도 있다.

상록침엽수로서 높이가 17m이고 가슴높이 둘레가 3~5m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강한 음수로서 올폐된 활엽수림 밑에 능히 자라고, 침엽수림에 있어서도 다른 침엽수와 더불어 임상을 유지하지만 따뜻하고 척박



한 곳에 심은 것은 밀가지가 마르며 그늘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불규칙하게 두줄로 배열되고 선형으로서 길이 1.5~2.5cm, 나비 2~3mm이며 끝이 갑자기 뾰족하고 밑이 넓은 쐐기형이며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의 기공조선은 연한 황색이며 녹색 부의 2배정도 넓고 주맥이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잎은 2~3년간 가지에 달려있다. 꽃은 자웅1가화로 4월에 피고 9월에 빨갛게 익으며 종자는

1l에 12,400개정도 된다.

유사종으로 잎의 나비가 3~4.5mm인 것을 회 솔나무(*T. var. latifolia*)라고 하며 북부와 울릉도에서 자란다. 주목과 같지만 키가 크지않고 밑에서 여러개로 갈라져 1~2m자라는 것을 눈주목 (*var. nana*)라고 하며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서 정원수로 식재하고 있다. 키가 이와 비슷하지만 원대가 1개 자라고 가지가 길게 뻗으며 땅에 닿으면 뿌리가 내리는 것을 설악눈주목(*Taxus caespilosa*)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설악산 꼭대기 근처 눈잣나무의 군락에서 같이 자라고 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 들여온 주목류와 자생하는 주목과의 비교는 국내산은 불규칙하게 2열로 배열하나 외국에서 들어온 주목류는 가지를 중심으로 돌려나는 특징이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조밀하게 달린 잎의 진한 녹색과 가을의 붉은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으로 서양정원의 형상수 (Topiary)로서 귀족적인 맛을 풍기고 그늘에서도 생육이 양호하기 때문에 큰나무 아래 식재해도 무방하다. 특히 큰나무 아래 식재하고자 하는 것은 종자로 번식한 나무보다 삽목으로 번식한 것을 쓰



는데 이를 눈주목과 혼동하고 있다. 경계부분의 생울타리나 주요 지점에 독립수로 식재하며 “살아 천년 죽어천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수목이어서 기념식수로도 많이 이용한다.

4. 번식법

번식은 종자와 꺾꽂이로 한다.

□ 삽목번식

꺾꽂이가 가장 잘되는 식물이다. 시기는 4~5월이 적기이나 남쪽에서는 3월에도 가능하다. 특히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면 년중 가능하다. 삽수는 지난해에 자란 햇가지를 12~15cm길이로 잘라 물에 담갔다가 아래쪽 잎을 1/3쯤 따고 발근제를 발라 꺾꽂이한다. 발근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광하여 건조하지 않도록 관수를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

활착후 그대로 두면서 꾸준히 엽면시비를 하여 키운 다음 3년째 봄에 12~15cm 간격으로 넓혀 식재한다.

삽목번식한것은 대부분 옆으로 퍼져 자라기 때문에 눈주목이라하는데 구분하여야 한다.

□ 종자번식

가을에 채취한 종자는 2년간 노천매장 하였다가 파종하여야 발아가 된다. 종자로 번식해야만 곧게서 자라는 주목을 얻을 수 있다.

5. 그 밖의 용도

목재는 결이 곱고 아름답기 때문에 조각재, 공예재로 좋으며 기구재, 가구재, 서각재 등으로 사용하는데 매우 고가이다. **조경수**

